

인간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를 불교아카데미(제강 : 도솔래의상)

광주불교사암련 · 현대불교 공동주최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 10월 11일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내마음 돌아보기

선행보살, 중생의 고통을 살피다

02 우리나라 사찰에 가보면 팔상전(八相殿)이라는 법당이 있습니다. '상'이란 글자는 '서로 상(相)자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덟 가지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모시는 법당을 팔상전이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팔상도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도솔래의상(兜率來義相)'입니다.

도솔천은 삼계 중생세계에 속합니다. 중생세계는 육계 세계 무색계의 삼계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육계에 육천이 있는데 육천중의 하나가 도솔천입니다. 그곳

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명호에서 '석가'는 '능인'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의 최고를 의미합니다. '모니'는 '적묵'으로 침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구하는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침묵하지 못하는가하면 마음속에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공덕을 다 지었고, 만족하여 스스로 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안

거움을 보지만 거움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정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형상을 모르고, 또 시간이 없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길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상이라 하고 참선이라고도 하는데, 원리는 반조(返照)입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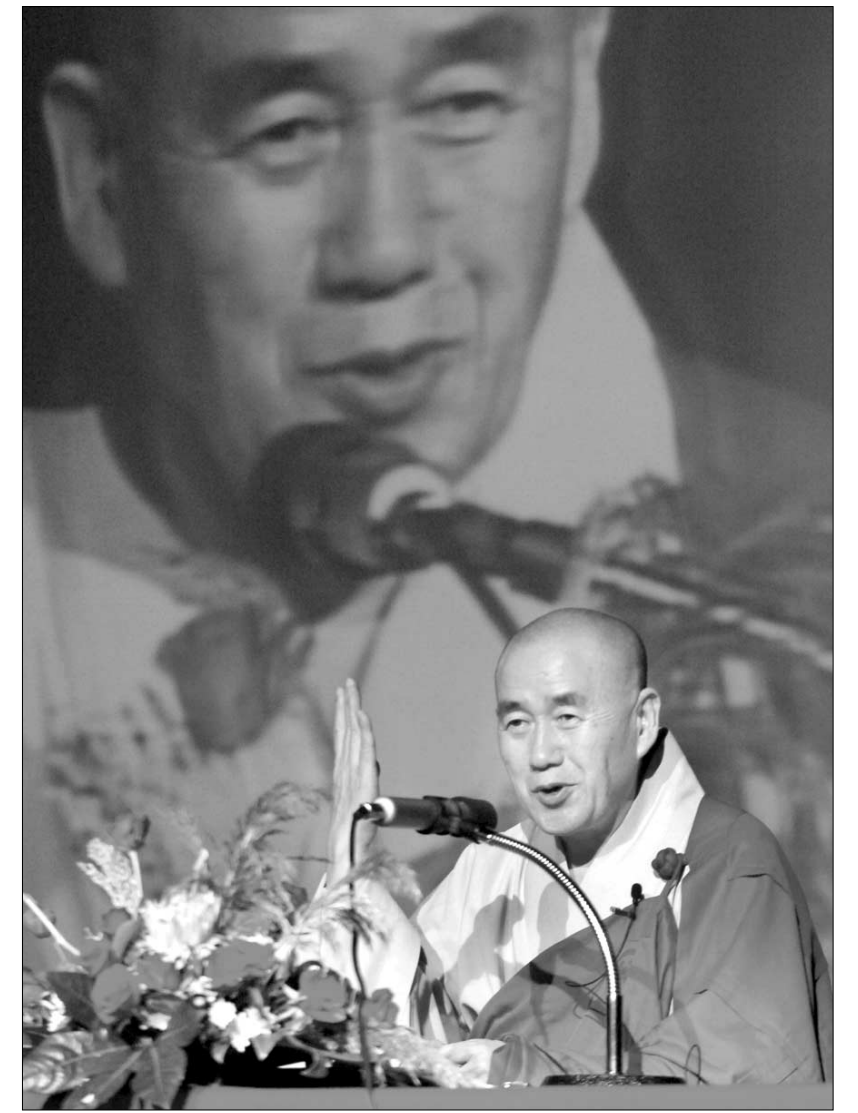
머느리가 미워 죽겠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돌이켜 보는 것이 약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깊어지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아주 깊으면 허공과 같이 다 없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없어지면 머느리를 보아도 밟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방법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도를 잘하면 잘못된 생각이 없어집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속느냐 하면 자기생각한테 평생 속습니다.

생각을 허공처럼 비우는 것을 도(道)라고 합니다. 생각이 비워지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무한한 공덕을 무한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만족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만족하면 하나도 많은 것이고, 억만 개를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만족할 줄 알면서 구함없이 선행하는 것이 성불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하기만 했지 만족은 한순간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만족



종범 스님은 만족할 줄 알고 구하기만 하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삶이 성불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만족함 모르면 삶은 끝없는 고통뿐
수행 통해 허망한 생각 줄여 나가야 ”



2006 빛고를 불교아카데미가 열린 광주 KT센터 대강당은 지역 스님과 불자 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의 인사말과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의 격려사에 이어 종범 스님의 강의로 막을 올린 빛고를 불교아카데미는 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이어진다.

은 중생세계이지만 모두가 자비심을 가지고 공덕을 닦는 곳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성불하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공덕을 닦으셨습니다. 선행에 따라 선행보살, 호명보살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보살행을 다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인간세계에 하생하는 광경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도솔래의상이라고 합니다.

도솔천은 마루보살이 계시는 곳으로 만족을 알고 자비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선행을 닦으셔서 보살도를 이루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바세계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을 세워

다는 것은 구하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구하는 욕구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해도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구하는 행위입니다. 평생을 구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하는 게 바로 지옥이며, 구하는 게 고통입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구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또한 고통은 형상과 시간에서 옵니다. 형상과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성불입니다. 생각해보면 즐거웠고 괴로웠던 일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보았던 것이 지금 있느냐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연못을 보면 달 그림자가 해 그림자가 있는데 연못 속에는 달과 해가 없습니다.

통도사 경봉 노스님의 일화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였는데 하루는 스님을 모시고 임종을 앞두고 죽겠다고 고함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분을 병문안 갔습니다. 노스님이 가까이 오자 그 사람이 스님에게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야야, 참선해라. 참선' 하시는 것입니다. 갈수록 놀랐습니다.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에게 참선하라고 하시다니...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참선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노스님이 너무 시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 노스님이 옳았습니다. 참선이 됩니까.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이 참선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방법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켜 보는 공부, 반조공부라고 합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니까 생각을 돌아보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하나가 많아지면 모든 것이 많아집니다. 기

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면 고통이지만 죽음에 만족하면 고통이 아니라 열반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느냐 만족하느냐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 이야기가 경전에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심과 발심입니다. 신심과 발심이 되어야 우리 생각의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보세요. 다만 우리 스스로 허망된 생각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 참선, 독경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허망된 생각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늘 만족하며 공덕을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공덕이 넓어져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리=이준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제2강 비람강생상
월운 스님(동국경원장)
10월 18일 광주 KT센터 (062)234-0090

질의응답

문 부처님의 원력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답 신심입니다. '고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기쁨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고통도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쁨도 내가 만들 수 있다. 내가 만들면 반드시 내가 이루고 내가 받는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결과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것인데 그 인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고통도 내가 만들었기에 기쁨도 내가 만들 수 있어

못하고 부모나 여러 가지에 원망을 합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닦고 또 닦고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보입니다. 내가 잘 두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신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환경이 바뀝니다. 여기에 신심을 계속 키워가는 정진이 중요합니다.

통도사 창건 제1361주년 개산대제

646년 신라 대국통이자 거례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자장율사에 의하여 창건된 통도사는 천년의 佛香을 머금은 불보종찰로서 면면히 불지중가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통도사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역대조사의 외호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음력 9월 9일 중앙지절을 맞이하여 자장스님의 연고제를 봉행함으로써 그 높은 덕화를 기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창사정신을 깊이 전승하고 역대 큰스님들의 고매한 뜻을 잇고자 하는 공양의식과 다채로운 법회로 짜여진 개산대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재식 : 2006년 10월 29일(일) 10:00
법요식 : 2006년 10월 30일(월) 10:30
문의처 - 만장, 민중 접수처
화엄전 접수처 (055)381-1288
종무소 전 화 (055)382-7182
* 차량운행 : 부산 온천장 지하철역 앞 오전 08시~09시

개산대제 봉행 및 문화행사 일정

- 2006년 10월 29일(음력 9. 8) 일요일**
 - 10:00 - 개산대제 및 영축사생대회 입재식 / 설법전
 - 13:00 - 개산 1361주년 기념 제7회 부도헌다제 / 부도전
 - 19:00 - 개산대제 기념 및 만등불사 점등 / 대웅전 앞
- 2006년 10월 30일(음력 9. 9) 월요일**
 - 08:00 - 괘불현괘 · 헌공 / 대웅전 앞 괘불대
 - 09:00 - 불공의식 / 설법전
 - 10:30 - 개산대제 법요식 / 설법전
 - 11:00 -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 대웅전
 - 11:30 - 재룡잔치 / 설법전
 - 13:30 - 개산대제 기념 합창제 / 설법전
 - 15:00 - 제16회 청원 안심사 괘불탱특별전 / 박물관



자장율사영정(해장보각본안)

영 축 총 립 통 도 사 주 지 산 용 지 은 합 장